

#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 개발\*

## Development of Daily Hassles Coping Scale for Children\*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민 하 영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유 안 진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Doctorial Course : Ha Young Min*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 An Jin Yoo*

### ◀ 목 차 ▶

I. 문제제기 및 연구문제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및 절차

IV. 연구결과 및 분석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e development of a scale to assess daily hassles coping behaviors for school aged children. The subjects were 398 children consisted of 197 3rd grade and 201 6th grade. They were selected from elementary school in Seoul, InCheon, DaeJeon, GwangJu and Pusan(202 males and 196 females) A questionnaire as the methodological instrument composed of 65-item daily hassles coping scale, demographic questions, 27-item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and 20-item Locus of Control Scale. Statistics such as mean, %,  $\chi^2$ , Cramer's V, Cronbach's  $\alpha$ , factor analysis and Pearson's r was used for data analyse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55 items of the 65-item scale were selected through item discriminant method. The discriminant coefficients of the items(Cramer's V) ranged from .35 to .68.
- 2) 5 factors were extracted from the 1st and the 2nd factor ananalysis. The subscales labelled 'active' 'passive' 'aggressive' 'avoidant' and 'social support seeking' coping. The criterion validity of this scale was assessed by computing the correlation measures of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and Locus of Control Scale with this scale. Most coefficients were significant(ranging from  $r=-.16$  to  $r=.40$ ,  $p < .01$ ,  $p < .001$ ), although their correlations were modest.
- 3) Finally,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is scale appeared to be at an acceptable level(Cronbach's  $\alpha=.90$ ).

\* 본 논문은 1998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부설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 되었습.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의 목적

인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출생과 더불어 생애 초기부터 경험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스트레스는 성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최근까지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그러나 근래들어 의학, 심리학, 교육학 그리고 아동학 등에서 스트레스 경험이 아동의 신체 및 사회,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후속되는 연구들 역시 이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개인의 신체 및 심리적 건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사실상, 개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스트레스 보다 이에 반응하는 대처행동이라는 주장(Lazarus & Folkman, 1984; Compas, Malcarne, & Fondacaro, 1988)이 더 설득력 있게 수용되고 있다. 즉 스트레스의 경험 유무보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며 대처하느냐 하는 대처행동방식에 따라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적응 결과는 달라진다고 본다. 따라서 아동의 신체, 심리적 발달과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의 경험 유무보다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규명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아동의 대처행동 규명 노력은 선행연구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보완,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아동의 대처행동에 관한 선행 연구는 만성적 질병으로 인해 장기 입원한 아동(Austin, Patterson, & Huberty, 1991), 부모가 이혼한 아동(Kliewer & Sandler, 1993) 등 심각한 생활 사건을 경험한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심리, 사회적 적응과 심각한 생활 사건에 대한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하려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사소한 스트레스가 만성질병, 부모의 이혼과 같은 심각한 스트레스보다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적응을 예측하는데 더 큰 설명력을 갖는 것(Beaver, 1997)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아동의 적응 예측을 위해서는 심각한 문제에 대한 대처행동보다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사소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안에서 경험하는 사소한 스트레스에 대해 그들이 사용하는 대처행동에 대한 규명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아동 대처행동에 관한 선행 연구는 아동의 대처행동 내용분류시 성인의 대처행동 내용범주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인과 달리 제한된 경험, 미숙한 인지 능력, 부족한 사회적 기술, 제한된 운동성,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 아동은 성인의 양육과 보호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적 개체인 성인과는 질적으로 다른 대처행동을 사용한다. 실제로 Band와 Weisz(1988)는 성인관련 대처행동범주로 아동의 대처행동 가운데 40% 정도를 범주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Causey와 Dubow(1992)는 아동의 대처행동 범주가 성인의 대처행동 범주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들 연구결과는 성인 혹은 청소년의 대처행동 연구에서 사용되는 척도를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동의 대처행동을 대표하거나 명확히 규명하는데 부족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사용하는 대처행동을 충분히 대표할 대처행동 범주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의 대처행동 범주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자기보고나 관찰 또는 선행 연구 결과의 내용 분석을 통해 아동의 대처행동을 범주화(Ryan-Wenger, 1992; Sorensen, 1993)한다는 점이다. 내용분석을 통한 대처행동의 범주규명은 대처행동에 관한 이론 개발의 첫단계로 의의가 있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용하는 아동의 대처행동 전략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내용분석을 통한 대처행동 범주구분은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10개 이상의 다범주화로 대처행동의 개념적 명확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대처행동과 관련된 제 발달영역과의 관련성 연구를 어렵게 하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요인분석의 통계적 절차를 통해 일상생활의 사소한 스트레스에 대해 아동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대처행동 범주를 경험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제안을 종합하면, 아동의 스트레스와 관련한 대처행동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일상의 사소한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 아동의 대처행동을 규명할 신뢰로우며 타당한 대처행동 측정 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당면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그때 마다 대처하는 아동의 행동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결과는 학문적으로 대처행동과 관련된 연구의 도구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부모와 교사 및 아동관련 종사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아동의 대표적인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생활지도 및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문제

이러한 연구목적에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 개발되는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는 신뢰롭고 타당한가?

이 연구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 1)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의 양호도는 어떠한가?
- 2)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 3)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대처행동의 개념

스트레스에 따른 사회·정서적 적응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중재변수가 대처행동(Lazarus & Folkman, 1984; Parker & Endler, 1996)이라는 주장

은 여러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지지되고있다(Beaver, 1997). 대처행동이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의미하나 반응의 범위를 반사적 행동까지 포함시키느냐, 의식적 행동으로 제한하느냐에 따라 대처행동의 개념 규정은 달라진다. Silver와 Wortman(1980)은 대처행동을 '직접적·잠재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개인이 보이는 모든 반응'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대처행동을 혐오적 자극에 대한 학습된 반응 뿐 아니라, 위협에 대한 본능적·반사적 행동까지 포함시켰다. 그러나 본능적, 반사적, 행동까지 대처행동의 정의에 포함시키면 환경에 대해 인간이 반응하는 모든 행동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한 경우 대처행동이 너무 광범위하여 대처행동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대처행동의 구체적인 규명을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수반되는 행동측면으로 범위를 조작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몇몇 연구자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의도적 또는 목적적 반응으로 대처 행동을 국한시키고 반사나 자동적인 반응은 대처행동의 범위에서 제외시켰다(Lazarus & Folkman, 1984; Kiewer, 1991). Folkman과 Lazarus(1984)는 대처행동을 정의하는데 의도적 반응에 초점을 둘 것을 강력히 강조하면서, 대처행동을 '개인이 갖고 있는 자원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강요한다고 평가되는 내·외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인지적·행동적 노력'으로 범위를 규정하였다. Kiewer(1991) 역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대처행동 연구에서 Folkman과 Lazarus의 정의에 근거하여 '스트레스를 처리하기 위한 인지적·행동적 노력'을 대처행동이라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대처행동을 '환경적 맥락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적, 행동적 노력'이라고 범위 규정하는 것은 대처행동 연구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도 연구의 간편성과 효율성을 위해 대처행동의 범위를 의도적 또는 목적적인 인지적 및 행동적 반응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 2. 아동의 대처행동 범주

아동의 대처행동 범주 규명은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적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인의 대처행동 범주의 부분적 수정, 보완을 통한 사용에서 벗어나 아동의 대처행동 특성을 측정하려는 노력(Ayers, 1991; Band & Weisz, 1988; Causey & Dubow, 1992; Ryan-Wenger, 1991; Rossman, 1992; Sorensen, 1993)이 요구된다. 아동의 대처행동에 관한 초기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Folkman과 Lazarus(1985)의 문제 지향적 대처행동 대 정서 지향적 대처행동, Roth와 Cohen(1986), Ebata와 Moos(1991) 등의 접근적 대처행동 대 회피적 대처행동 종류를 토대로 아동의 대처행동을 이분법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성인의 대처행동 범주를 아동의 대처행동 범주로 사용할 경우, 첫째, 성인에게 적응적이지 못한 회피행동이 아동에게는 적응적인 대처행동으로 분류되고(Kliewer, 1991) 있다는 점, 둘째, 아동이 사용하는 다수의 대처행동이 성인의 대처행동 범주로 분류되어지지 못한다는 점(Band & Weisz, 1988; Causey & Dubow, 1992) 등이 지적된다. 그러므로 성인의 대처행동 범주를 모델로 하여 작성된 아동의 대처행동 측정도구는 아동의 대처행동을 충분히 대표하거나 설명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Ayers, 1991; Band & Weisz, 1988; Compas, Malcarne, & Fondacaro, 1988; Mellins, Gatz, & Baker, 1996; Sorensen, 1993). 성인의 대처행동은 스트레스 사건을 직접 다루거나 변경시키기 위해 문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행동 계획을 세우는 등의 문제 집중적 대처행동 또는 접근적 대처행동과 스트레스 사건을 회피하거나 스트레스 사건으로부터 유발된 감정을 처리하려는 정서 집중적 대처행동 또는 회피적 대처행동으로 대표된다(Ebata & Moos, 1991; Folkman & Lazarus 1985; Roth & Cohen, 1986). 그러나 최근 이러한 이원적 대처행동보다 삼원적 또는 다원적 대처행동이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대처행동을 효율적으로 대표한다고 보고되고 있다(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Endler & Parker, 1990).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아동관련 대처행동 연구에서도 지지되고 있다. Ayers(1991)는 기존의 아동 대처행동 척도가 아동의 대처행동을 탐색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

원적 분류체계가 아닌 4원적 분류체계의 대처행동 척도를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대처행동 관련 연구자들은 문제 집중적 대처행동 이외의 요소들은 정서 집중적 대처행동의 변형체라고 보고 이를 정서 집중적 대처행동으로 분류하지만, 정서 집중적 대처행동으로 분류되어지는 하위요소들 중 몇몇은 정서 집중적 대처행동과는 아주 다른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접근 대 회피적 대처행동(Roth & Cohen, 1985)의 경우에도 접근적 대처행동에도 포함되고 회피적 대처행동에도 포함되는 요인들이 있다(Causey & Dubow, 1992). 따라서 이들을 분류시킬 범주구명이 요구된다. Ayers(1991)는 아동의 대처행동을 기존의 성인관련 대처행동처럼 이원화하는 것이 자료의 손실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면서, 9세에서 12세된 아동의 대처행동을 요인분석을 통해 1) 스트레스 사건을 직접 해결하려는 적극적 대처행동, 2) 스트레스 사건에서 관심을 전환하기 위해 스트레스 사건과 관련없는 구체적 활동에 참여하는 관심 전환적 대처행동, 3) 스트레스 사건으로부터 도망가거나 생각하지 않으려는 회피적 대처행동 그리고 4)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문제해결이나 정서적 위안을 타인에게서 찾는 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경험적 연구를 통해 아동의 대처행동이 다원적 차원으로 분류되는 것은 성인대상의 이원적 대처행동 유형으로 아동이 사용하는 인지적·행동적 대처행동 레파토리를 폭 넓게 수용할 수 없다는 선행 연구의 주장(Band & Weisz, 1988; Causey & Dubow, 1992)을 지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대처행동은 이원적 대처행동 범주보다 다원적 대처행동 범주로 접근하는 것이 요구된다.

### 3. 아동의 우울 성향 및 통제소재와 대처행동과의 관계

대처행동 종류는 우울 성향, 통제소재 등 개인의 심리·정서적 특성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Compas et al, 1988; Kliewer, 1991). 개인의 우울성향은 정서 지향적인 대처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문

제 지향적 대처행동 및 사회적 지지 추구적 대처행동과는 부적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Amirkhan, 1990; Endler & Parker, 1990)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몇몇 연구에서, 대처행동은 행동에 대한 원인과 그 결과를 지각하는 인과적 신념인 통제소재와도 유의한 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행동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과 같은 자기 내부 요인으로 지각하는 내적 통제자는 직접적 대처행동이나 사회적 지지 추구하고 같은 적극적 대처행동 사용과는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며,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려는 억압적 대처행동, 스트레스를 회피하려는 거리두기(distancing),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외부로 발산하려는 외부화(externize) 등의 비적극적인 대처행동과는 부적의 관계를 보이는 것(Causey & Dubow, 1991; Parkes, 1984)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직접적인 문제 해결이나 사회적 지지 등의 대처행동은 적응적인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문제해결보다 이를 회피 또는 수용하거나 스트레스의 의미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등의 비적극적인 대처행동은 적응적인 심리·사회적 특성과는 부적의 관계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연구결과를 대처행동 유형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예측하는데 유의한 변수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 개발된 대처행동 유형이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개발된 척도의 기준관련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조사대상

이 연구에서는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의 범주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 인천, 대전, 광주 그리고 부산 소재 초등학교 3, 6학년 남녀 아동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령의 아동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신

체적인 면에서 2차 성장과같은 신체기능의 질적 발달이 시작되고, 인지적인 면에서 발전된 새로운 인지체계 구축 및 향상된 학습능력의 기대가 가중되고, 사회적인 면에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의 가치관이나 규범을 획득, 수행하며, 또래문화를 배우고 또래에 적응할 것을 기대받는 등(유안진, 1995)

<표 1> 조사 대상 아동의 일반적 성격

변 수	구 분	빈도(%)	인원(결측인원)
학년	3학년	197(49.5)	398( 0)
	6학년	201(50.5)	
성별	남자	202(50.8)	398( 0)
	여자	196(49.2)	
연령	9세	48(12.1)	398( 0)
	10세	149(37.4)	
	12세	40(10.1)	
	13세	161(40.4)	
지역	서울	66(16.6)	398( 0)
	인천	93(23.4)	
	대전	75(18.8)	
	부산 광주	73(18.3) 91(22.9)	
형제수	외동아	30( 7.5)	388(10)
	1명	291(73.1)	
	2명 이상	67(16.9)	
가족형태	핵가족	328(82.4)	397( 1)
	3세대 직계가족	54(13.6)	
	2세대 동거가족	14( 3.5)	
아버지의 직업	전문 관리직	59(14.9)	371(27)
	사무직	144(36.2)	
	생산, 서비스직	167(42.0)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28( 7.4)	378(20)
	100-200만원 미만	177(46.8)	
	200-300만원 미만	108(27.1)	
	300만원 이상	66(16.6)	
아버지의 학력	중졸 이하	43(10.8)	376(22)
	고졸	167(42.0)	
	전문대졸	17( 4.3)	
	대졸	130(32.7)	
	대졸이상	19( 4.8)	
어머니의 학력	중졸 이하	66(16.6)	378(20)
	고졸	223(56.0)	
	전문대졸	17( 4.3)	
	대졸	67(16.8)	
	대학원졸이상	5( 1.3)	

일상 생활에서의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 시기의 아동은 조사도구인 질문지의 답변능력이 있는 초등학교 중기와 후기를 대표할 수 있는 학년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권, 경기권,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을 대표하는 서울, 인천, 대전, 광주, 그리고 부산의 5개 도시에서 각 1개 초등학교를 임의표집하였다. 그리고 각 도시의 1개 학교 3학년, 6학년 한반씩 총 10개 반 40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아동들의 일반적 성격은 <표 1>과 같다.

## 2. 조사도구의 구성

### 1)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 구성

조사도구를 구성하기 위해 Ayers(1991)가 개발한 아동용 대처전략 목록표(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Children's Coping Strategies Checklist: CCSC), Band와 Weisz(1988)의 1차적-2차적 통제 대처행동 모델(Primary-Secondary Control Model), Ryan-Wenger(1992)의 아동대처전략범주(A Taxonomy of Children's Coping Strategies), Causey와 Dubow(1992)의 자아 보고 대처 척도(Self-Report Coping Scale), Rossman(1992)의 지각된 대처행동 설문지(Perceived Coping Questionnaire: CPCQ), 송의열(1995), 이현정(1997) 등 아동의 대처행동에 관한 국내, 외 연구 척도들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서울 거주 18명의 3, 6학년 남, 녀아동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연구자가 직접 개별면접을 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사용되는 학령기 아동의 대처행동 내용을 파악하였다. 척도 수집과 직접 면접을 통해 92개의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서울 거주 초등학교 3, 6학년 각 30명을 대상으로 작성된 문항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용빈도가 낮은 문항, 내용이 중복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 또는 분명하지 않은 문항 등 27개의 문항을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조사에서 사용될 총 65개 문항의 자기보고식 질문지가 개발되었다.

응답방식은 다양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대처행

동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방학동안과 개학 후 3개월 동안 매우 슬프거나 괴롭거나 짜증나게 했던 생활 사건들에 대해 각 문항에 제시된 예문의 대처행동을 어느 정도 사용했는가를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런 편이다' '많이 그렇다' '아주 많이 그렇다'의 4점 척도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 2) 아동의 우울 척도와 통제소재 척도 구성

이 연구에서 개발되는 아동의 대처행동척도가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예측하는데 유의한 기능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우울 척도와 통제소재 척도를 구성하였다.

아동용 우울 검사 척도는 Kovacs(1981)의 아동용 우울 검사(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사용하였다. CDI는 8세에서 13세 아동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우울한 기분 5문항, 행동 장애 7문항, 흥미 상실 7문항, 자기비하 4문항, 생리적 증상 4문항의 5가지 범주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아동의 우울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응답방식은 각 문항의 3개의 서술문 중 지난 2주일 동안 자신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서술문을 선택하는 것으로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에 대해 각각 0점, 1점, 2점을 부여하였다. 한편 자료 분석과정에서 각 문항 제의시 Cronbach's  $\alpha$ 값이 상승되는 3개 문항(우울한 기분 1문항, 흥미상실 2문항)이 나타나 이를 제외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자료분석에서 사용된 문항은 총 24개 문항이었으며, 0-48점 사이에 분포하는 우울 점수는, 점수의 크기가 클수록 높은 우울 성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 측정 척도의 타당도는 아동학 전공자 3인을 통해 검증받았고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0$ 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의 통제소재 척도는 Nowicke와 Strickland(1973)의 아동용 통제소재 척도를 기초로 하고 Connell(1985)의 아동의 통제력 지각에 대한 다차원적 척도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아동이 이해하고 응답하기 쉽도록 4점 리커트로 재구성한 아동의 내외 통제소재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동의 내외통제소재

척도는 내적 통제소재 및 외적 통제소재를 묻는 각 10개 문항을 합하여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내외통제소재는 인과적 원인 지각에 대한 아동의 구조적 성향(Connell, 1985)으로, 응답방식은 각 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다'에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응답에 대한 점수 부여는 1-4점의 점수를 부여하되 외적 통제 문항은 역산 처리하였다. 따라서 통제 소재 점수가 높은 아동일수록 높은 외적 통제 소재 성향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통제소재 척도의 타당도는 아동학 전공자 3인을 통해 검증받았고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4$ 로 나타났다.

### 3. 조사절차

본 조사를 위한 조사도구의 구성을 위해 1997년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초등학교 3, 6학년 18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개별면접을 실시하였다. 한편 1차 작성된 92문항에 대해 1997년 10월 9일 서울 거주 초등학교 3, 6학년 각 30명 총 60명에 대한 예비조사가 있었다. 예비조사결과를 토대로 최종 정리된 65개의 대처행동 문항에 대한 본 조사는 1997년 10월 21일부터 11월 6일 사이에 서울, 인천, 대전, 광주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 총 40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방법은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통화 및 서면을 통해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요령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아동용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아동용 질문지는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학교에서 실시된 후 회수되었다. 회수된 질문지는 각 지역의 담임교사를 통해 연구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되었다. 그 결과 409부가 회수되었으며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한 398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삼았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PC+와 SAS PC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증 및 Cramer's V계수를 산출하였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scree 검증 및 varimax 회전방법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는 내적 합치도 지수인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문항 양호도

아동의 대인간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의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첫 단계로 65개 문항들이 변별도에서 양호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chi^2$  값과 Cramer's V의 계수, 문항이 제거된 후의  $\alpha$ 값 그리고 문항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문항의 변별도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 결과 65개 문항 중 문항이 제거된 후의  $\alpha$ 값이 증가하는 문항 6개 문항간 상관계수가 .30이하인 문항 10개를 제거하였다. 한편 전체 응답분포를 토대로 상·하위 27% 두 집단 사이에 각 문항에 대한 응답빈도가 차이가 나는지를  $\chi^2$  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전체 55개 문항은  $P < .001$  에서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Cramer's V계수는 모든 문항에서 .35에서 .68 사이를 나타냈다. 변별도 지수의 일반적 수용수준이 Cramer's V .25임을 고려해보면, 이 연구에서 개발된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척도문항 구성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 2. 타당도

문항들의 구조를 파악하고 척도 구성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로, 앞서 문항 변별도 분석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55개 문항에 대한 1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scree 검사, 누적 분산 비율을 고려하여 요인 수를 지정한 후,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고 varimax방법으로 회전시켰다. 1차 요인 분석 결과 요인 부하값이 .40 이하를 나타내거나 타

〈표 2〉 문항 양호도 분석 결과

문항 번호	문항 점수의 평균	문항 점수의 표준편차	문항- 척도간 상관계수	문항 제외시 $\alpha$	$\chi^2$	Cramers' V
2	1.72	.91	.32	.90	34.01**	.39
4	1.55	.78	.37	.90	27.50**	.35
21	2.07	1.11	.41	.90	60.35**	.53
13	1.83	.93	.39	.90	53.38**	.49
14	1.78	.97	.37	.90	47.34**	.46
15	2.10	1.10	.50	.89	81.01**	.61
19	2.07	.98	.45	.89	69.86**	.57
20	2.16	.97	.47	.89	83.14**	.62
22	1.70	.98	.32	.90	36.58**	.41
24	1.87	.96	.36	.90	43.07**	.44
25	1.50	.74	.32	.90	26.56**	.35
26	1.94	.98	.44	.89	68.34**	.56
28	1.66	.92	.36	.90	43.07**	.44
29	1.82	.96	.43	.90	53.78**	.50
31	2.17	1.08	.40	.90	59.48**	.52
33	1.93	.89	.39	.90	64.10**	.54
34	1.80	.84	.31	.90	26.76**	.35
36	1.62	.84	.35	.90	34.50**	.40
39	2.26	1.13	.35	.90	34.01**	.39
40	2.42	1.16	.54	.89	101.20**	.68
41	1.64	.86	.47	.89	62.80**	.54
42	1.68	.88	.48	.89	68.41**	.56
43	2.15	1.02	.43	.90	58.51**	.52
45	1.66	9.32	.41	.90	59.48**	.52
46	1.76	.85	.33	.90	63.44**	.54
47	1.64	.85	.33	.90	44.06**	.45
48	1.94	.89	.42	.90	65.59**	.48
50	2.13	1.17	.48	.89	72.96**	.58
51	1.81	.92	.39	.90	53.68**	.50
53	1.57	.76	.32	.90	37.94**	.38
54	1.70	.87	.41	.90	46.55**	.46
56	1.50	.77	.33	.90	46.80**	.46
57	1.82	.94	.40	.90	56.02**	.50
58	1.97	.98	.37	.90	44.91**	.45
60	1.84	.88	.41	.90	66.55**	.55
61	2.06	.95	.39	.90	58.49**	.51
62	2.07	1.09	.50	.89	44.91**	.45
63	1.87	1.02	.37	.90	66.34**	.54
64	1.87	1.00	.44	.89	65.58**	.55
65	1.74	.85	.35	.90	45.44**	.45

\*\*  $p < .001$  문항번호는 본조사에서 사용된 번호와 일치하나, 문항 양호도 검사에 사용된 65개 문항 중 1, 2차 요인 분석결과 최종 선택된 40개 문항에 대한 문항 변별도 분석결과만을 기재 하였습.

요인과 .35이상의 요인 부하값을 보이는 11개 문항을 제외하였다. 한편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의 정교화를 위해, 1차 요인 분석 결과로 나온 55개 문항을 대상으로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 요인분석 역시, scree 검사, 누적 분산비율을 고려하여, 요인수를 지정한 후, 주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varimax방법으로 회전시켰다. 그 결과 전체 변량의 44.4%를 설명하는 5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중 해당 요인과의 요인 부하값이 .40이하를 나타내거나 타 요인과 .35이상의 요인 부하값을 보이는 4개 문항을 제외한 40개 문항을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측정하는 최종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요인구조는 〈표 3〉과 같다.

요인 1은 전체변량의 20.3%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9개의 문항이 포함된다. 9개 문항은 주로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적극적 대처행동'이라고 명명하였다. 구체적인 예로 문제해결을 위해 계획을 세우거나 방법을 생각하며 정보를 탐색하는 등의 활동이 포함되었다. 요인 2는 전체변량의 10.6%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처리하기 위한 문항 또는 기적이나 신비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동적인 대처행동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소극적 대처행동'이라고 명명하였다. 구체적 예로 자신의 감정을 울음이나 글로 표현한다거나 신의 힘이나 기적의 힘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하는 등의 행동이 포함되었다. 요인 3은 전체 설명변량의 4.6%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체나 언어적 공격을 통해 스트레스 유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지적 행위 및 행동적 행위로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공격적 대처행동'으로 명명하였다. 구체적 예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한다든가 욕, 비아냥, 신경질과 같은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동이 이에 포함되었다. 요인 4는 10개 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4.6%를 설명하고 있다. 문항내용은 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이를



<표 3>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의 요인 행렬표

요인명명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h <sup>2</sup>
적극적 대처행동	61	.75					.58
	48	.73					.58
	20	.72					.56
	19	.70					.53
	51	.66					.46
	60	.63					.47
	33	.59					.42
	65	.48					.39
	43	.45					.39
소극적 대처행동	2		.57				.50
	39		.61				.43
	14		.60				.41
	22		.58				.47
	63		.53				.36
	40		.52				.45
	15		.48				.43
	50		.46				.38
	11		.46				.30
	4		.44				.31
31		.42				.28	
공격적 대처행동	45			.79			.65
	29			.78			.64
	34			.70			.53
	53			.67			.48
	26			.55			.39
42			.54			.42	
회피적 대처행동	57				.63		.45
	47				.57		.41
	64				.56		.40
	58				.56		.38
	62				.53		.47
	46				.52		.42
	56				.50		.34
	36				.50		.30
13				.45		.33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25					.72	.54
	24					.71	.60
	28					.66	.53
	54					.57	.44
41					.45	.36	
고유값 설명변량	8.13 20.3	4.22 10.6	1.90 4.7	1.82 4.6	1.68 4.2		
총설명변량	44.4						

유보하거나 스트레스를 부정 또는 문제 자체를 생각하는 것을 거부하며, 문제 의미를 재해석하는 인지적 행위 및 행동적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회피적 대처행동'이라고 명명하였다. 구체적 예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망가거나 스트레스에 대해 생각하려하지 않는다거나 상황의 심각성을 회색시켜 해석하는 등의 행동이 포함되었다. 요인 5는 5개 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42%를 설명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서적 위안을 받으려는 도구적 사회 지지 추구하고 정서적 사회 지지 추구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 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으로 명명하였다. 구체적 예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정보, 충고 또는 직접적 문제해결을 도움받거나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줄 사람을 찾아가는 행동이 이에 포함되었다. 대처행동 요인간 상관관계를 산출한 <표 4>의 내용을 보면,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 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간에는 .52 이상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소극적, 회피적 그리고 공격적 대처행동 간에는 약 .49에서 .42 이상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적극적 대처행동을 보이는 아동이 사회 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함께 사용할 가능성이 더 크며, 소극적, 회피적 대처행동을 보이는 아동이 공격적 대처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적극적 및 사회 지지 추구적 대처행동과 소극적, 회피적, 공격적 대처행동간에도 낮지만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어, 아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양한 대처행동을 폭넓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5개 요인은 Ayers(1991)의 적극적, 관심 전환적, 회피적 그리고 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의 4원적 대처행동 요인과 유사하나 관심 전환적 대처행동 및 공격적 대처행동 요인에서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Ayers의 경우 대처행동의 성향성을 측정함으로써 공격적 대처행동이 요인으로 추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연구는 대처행동의 성향성 보다 특정한 상황에서 아동의 대처행동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공격적 대처행동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된 것으로 보여진

〈표 4〉 대처행동 요인간 상관관계

상관관계	적극적 대처행동 요인	소극적 대처행동 요인	공격적 대처행동 요인	회피적 대처행동 요인	사회 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요인
적극적 대처행동요인	1.0				
소극적 대처행동요인	.2702**				
공격적 대처행동요인	.1487*	.4743**			
회피적 대처행동요인	.3421**	.4926**	.4214**		
사회 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요인	.5288**	.3216**	.2134*	.3092**	1.0

\*  $p < .01$  \*\*  $p < .001$ 

다. 이러한 해석은 특정한 상황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을 기초로 아동의 대처행동을 분류한 Rossman(1992)의 CPCQ(아동이 지각한 대처행동 질문지)가 양육자의 도움, 관심전환/회피, 감정분출, 또래 사용, 자기 위안, 공격행동으로 아동의 대처행동요인을 추출했음을 고려해 볼 때 가능하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농구, 축구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해 감정을 분출하거나 오락이나 컴퓨터 게임 등을 통한 감정조절 등의 관심 전환적 대처행동(Ayers, 1991)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지 않았다. 아마도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 직면한 스트레스에 대해 관심 전환적 행동으로 대처하는데 이용되는 체육 시설 공간이나 개인용 컴퓨터 또는 오락기구 등이 서구 아동에 비해 충분하지 않으므로 인해 하나의 독립적인 대처행동 요인으로 추출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간정도의 사용빈도를 보이는 대처행동 문항만을 대상으로 본조사에서 3단계에 걸친 문항 양호도 검증 및 1, 2차에 걸친 요인분석을 했다. 그리고 요인분석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 하에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므로 좋은 문항을 추출하기 위한 시도로 이루어지는 단계별 회귀분석을 추가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발된 대처행동 척도의 기준 관련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심리·사회적 특성 변수인 아동의 우울 성향 및 통제소재와 이 연구에서 개발한 대처행동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표 5〉에서 처럼 이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 변수인 우울 성향 및 통제소재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모든 측면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예상된 방향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적극적 대처행동은 우울과 통제소재와 그리고 사회 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은 통제소재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반면 소극적인 대처행동과 공격적인 대처행동은 우울과 통제소재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내적인 통제 소재 아동일수록 또는 우울성향이 낮은 아동일수록 적극적인 대처행동이나 사회 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소극적, 공격적 또는 회피적 대처행동 사용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적인 통제 소재 아동일수록 또는 우울 성향이 높은 아동일수록 적극적 또는 사회 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에 비해 소극적 또는 공격적인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 대처행동 요인과 아동의 심리·사회적 성격 특성 간의 상관관계

대처행동요인	준거변인 우울성향	통제소재
적극적 대처행동요인	-.2077**	-.4046**
소극적 대처행동요인	.3687**	.1837**
공격적 대처행동요인	.1969**	.1445*
회피적 대처행동요인	.0077	.0771
사회 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요인	-.0930	-.1755**

\*\*  $p > .001$  \*  $p > .01$

한편 이 연구에서 추출된 회피적 대처행동 요인은 소극적 대처행동 요인과 더불어 Folkman과 Lazarus(1985)의 정서 집중적 대처행동 또는 Roth와 Cohen(1985), Ebata와 Moos(1991)의 회피적 대처행동에 포함될 수 있으나 소극적 대처행동과 달리, 회피적 대처행동은 아동의 우울 성향이나 통제소재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소극적 대처행동과 회피적 대처행동을 같은 요인으로 분류할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사회 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은 Folkman과 Lazarus(1985)의 문제 집중적 및 정서 집중적 대처행동 또는 Roth와 Cohen(1985), Ebata와 Moos(1991)의 접근 및 회피의 대처행동 특성을 모두 함의하면서도 독립적인 대처행동 요인으로 기능하며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의 이원적 대처행동으로 아동의 대처행동 유형 및 아동의 심리적 성향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는 Causey와 Dubow(1992), Mellins, Gatz와 Baker(1996), Ayers(1991) 등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3. 신뢰도

이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합치도를 구체적인 계수로 나타내주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표 5>과 같이  $\alpha = .90$ 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를 보면 모든 요인에서 .70에서 .84사이로 각 요인의 문항수를 고려해볼 때, 만족할 만한 수준을 나타냈다.

<표 6>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의 문항수 및 신뢰도 계수

대처행동 하위요인	문항수	Cronbach's $\alpha$
• 적극적 대처행동요인	9	.84
• 소극적 대처행동요인	11	.80
• 공격적 대처행동요인	6	.81
• 회피적 대처행동요인	9	.70
•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요인	5	.73
전 체	40	.90

## V. 요약 및 결론

청소년이나 성인만큼 아동을 대상으로한 스트레스 대처행동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동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대처행동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측정할 도구가 요구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중기 및 후기 학년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정할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인천, 대전, 광주 그리고 부산의 5개 지역 3, 6학년 초등학교 학생 409명을 대상으로,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개발을 목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연구결과를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 개발된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의 문항 구성은, 문항과 전체 문항간의 상관관계, 문항 제외시  $\alpha$  값,  $\chi^2$  값과 Cramer's V의 계수 확인을 통해 상당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개발된 대처행동 척도는 구성 및 기준관련 타당도에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이 연구의 척도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척도구성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 양호도에서 선별된 55개 문항을 대상으로 1차,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당요인과 요인 부하값이 .40 이상이며, 타 요인과 .35이상의 요인 부하값을 보이지 않는 40개 문항이 전체 변량의 44.4%를 설명해 주는 5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5개 요인은 각각 문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극적 대처행동' '소극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회피적 대처행동' 그리고 '사회 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으로 명명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 개발한 대처행동 척도의 기준 관련 타당도의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대처행동 척도와 아동의 심리·사회적 성격적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회피적 대처행동과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행동이 우울성향 및 통제소재와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나머지 변인들간에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유의

한 상관관계의 방향은 예상된 방향성을 보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기준관련 타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추출된 5개의 요인구조 및 각각의 요인구조와 심리·사회적 성격 특성과의 독립적인 상관관계를 고려해볼 때, 아동의 대처행동 측정은 기존의 이원적 분류체계 보다 다원적 분류체계안에서 측정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경험적 자료에 기반한 다차원적 대처행동의 사용 필요성을 제안한 Ayers(1991), Causey와 Dubow(1992) 등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 개발된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는 신뢰롭다고 볼 수 있다. 내적 합치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한 결과 .90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별 Cronbach's  $\alpha$ 계수도 하위 요인의 문항수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70-.84의 범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전국 5개 도시 지역 초등학교 3,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한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는 일상 생활의 사소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들의 대처행동을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정할 도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지 못함으로써 개발된 척도의 안정성을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재검사를 통해 척도의 안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요구된다. 둘째, 우울성향, 통제소재 등 대처행동 척도의 기준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개인의 심리·사회적 성격특성을 대처행동 자료 수집원과 동일한 아동 자신의 보고에 의존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대처행동 척도가 갖는 기준관련 타당도의 유의성이 동일한 자료 수집원에 따른 편향된 자료의 수집 결과에 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처행동의 기준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대처행동의 자료원(源)인 아동이외의 자료원 즉 부모, 교사 등으로 부터 아동의 행동 특성을 수집하여 그 자료를 대처행동 척도와 관련시켜 관계의 유의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학문적으로, 5개 도시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일상의 특정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들이 대체로 많이 사용

하는 대처행동 유형을 규명하고 이를 측정할 다차원적 척도를 개발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 의의를 지닌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모 및 교사, 아동관련 종사자들에게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이해 및 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 참고문헌

- 1) 송의열 (1995). 일상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 유안진 (1995). 인간발달 신강. 서울:문음사.
- 3) 이소은 (1990).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아동 및 청소년의 대처방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4) 이현정 (1997).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과 사회적 적응. 학업성취 및 행동 문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Altshuler, J. L., & Ruble, D. N. (1989). Developmental changes in children's awareness of strategies for coping with uncontrollable stress. *Child Development*, 60, 1337-1349.
- 6) Amirkhan, J. H. (1990). A factor analytically derived measure of coping: The coping strategy indicator.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066-1074.
- 7) Ayers, T. S. (1991). A dispositional and situational assessment of children's coping: Testing alternative theoretical models. Doctoral dissertation, Arizona State Univ., Tempe, Arizona, 1991.
- 8) Ayers, T. S., Sandler, I. N., West, S. T., & Roosa, M. W. (1996). A dispositional and situational assessment of children's coping: Testing alternative models of coping. *J. of Personality*, 64, 923-958.
- 9) Austin, J. N., Patterson, J. M., & Huberty, T. J. (1991). Development of the coping health inventory for children. *J. of Pediatric Nursing*, 6, 166-174.
- 10) Band, E. B., & Weisz, J. R. (1988). How to feel better when it feels bad : Children's perspectives

- on coping with every 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247-253.
- 11) Beaver, B. R. (1997). The role of emotion in children's selection of strategies for coping with daily stresses, *Merrill-Palmer Quarterly*, 43, 129-146.
  - 12) Causey, D. L., & Dubow, E. F. (1992). Development of a self-report coping measure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J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 47-59.
  - 13) Carver, C. S., Scheier, M. F., & Weintraub, J. K.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267-283.
  - 14) Compas, B. E., Malcane, V. L., & Fondacaro, K. M. (1988).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in older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3, 405-411
  - 15) Connell, J. P. (1985). A new multidimensional measure of children's perceptions of control, *Child Development*, 36, 91-109.
  - 16) Ebata, A. T., & Moos, R. H. (1991). Coping and adjustment in distress and healthy adolescence, *J.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2, 33-54.
  - 17) Endler, N. S., & Parker, J. D. A. (1990).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coping: A critical evaluation,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44-854.
  - 18) Folkman, S., & Lazarus, R. 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college examination,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50-170.
  - 19) Folkman, S., Lazarus, R. S., Dunkel-Schetter, C., DeLongis, A., & Gruen, R. J. (1986). Dynamics of stressful encounter: Cognitive appraisal, coping, and encounter outcome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992-1003.
  - 20) Kovacs, M. (1981). Rating scales to assess depression in school age children, *Acta Paedopsychiatrica*, 46, 305-315.
  - 21) Kliever, W. (1991). Coping in middle childhood: Relations to competence, A type behavior, monitoring, blunting, and locus of control, *Developmental Psychology*, 27, 689-697.
  - 22) Kliever, W., & Sandler, I. N. (1993). Social competence and coping among children of divorce, *American J. of Orthopsychiatry*, 63, 432-440.
  - 23)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 24) Mellins, C. A., Gatz, M., & Baker, S. (1996). Children's methods of coping with stress: A twin study of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J.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7, 721-730.
  - 25) Nowicki, S., & Strickland (1973). A 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0, 148-154.
  - 26) Parker, J. D. A., & Endler, N. S. (1996). Coping and defense: A historical overview. In M. Zeider, & N. Endler, *Handbook of coping: Theory, research, application*, NY: John Wiley & Sons.
  - 27) Parkes, K. R. (1984). Locus of control, cognitive appraisal, and coping in stressful episode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655-668.
  - 28) Rossman, B. B. (1992). School-age children's perceptions of coping with distress: Strategies for emotion regulation and the moderation of adjustment, *J.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3, 1373-1397.
  - 29) Roth, S., & Cohen, L.J. (1986). Approach, avoidance, and coping with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1, 813-819.
  - 30) Ryan-Wenger, N. M. (1992). A taxonomy of children's coping strategies: A step toward theory development, *American J. of Orthopsychiatry*, 62, 256-263.
  - 31) Sorensen, E. L. (1993). *Children's stress and coping: A family perspective*, NY: The Gilford press.

부록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sup>2)</sup>

요인 명명	번호( )	문 항 내 용
적극적 대처행동	1 (61)	옛날에 썼던 방법이나 새로운 방법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다.
	2 (48)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
	3 (20)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19 (4)	문제의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5 (51)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예를 들어 공부, 건강, 친구 사귀기 등을 위한 계획)을 세워본다.
	6 (60)	문제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점이나 배울 점을 찾으려 애써본다.
	7 (33)	문제가 왜 일어났나를 상대방에게 설명하거나 이야기해서 문제가 더 커지거나 사이가 더 나빠지 않도록 한다.
	8 (65)	문제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따지기 보다 되도록 나 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9 (43)	"난 할수 있어" "난 문제 없어"라고 마음으로 다짐한다
소극적 대처행동	10 (2)	혼자 조용히 운다.
	11(39)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하고 바란다.
	12(14)	내 마음을 글로 쓰거나 낙서를 한다.
	13(22)	내가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에 집을 나간다가나 학교를 그만 둔다가나 죽는 것을 생각한다.
	14(63)	좋아하는 강아지나, 인형, 사진 등을 보면서 속상하거나 슬픈 내 마음을 이야기 한다.
	15(40)	이 일이 꿈이었으면 하고 바란다.
	16(15)	기적이 일어나 그 문제가 없어지기를 바란다
	17(50)	웨딩피치, 세일러 문, 등을 생각하며 우울이나 신비한 힘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고 바란다.
	18(11)	마음을 달래기 위해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듣는다
	19 (4)	그런 문제를 당한 내가 불쌍하고 안됐다고 생각한다.
20(31)	부처님, 하나님, 천주님 등에게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기도한다.	
공격적 대처행동	21(45)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보복한다.
	22(29)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사람에게 앙갚음(복수)을 할 방법을 생각해 본다
	23(34)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사람을 놀려주거나 욕해 준다.
	24(53)	다른 친구나 가족에게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사람을 욕하거나 좋지 않게 이야기 한다.
	25(26)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사람과 말을 하지 않거나 만나는 것을 일부러 피한다.
	26(42)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사람에게 화를 내며 따진다.
회피적 대처행동	27(57)	나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한다
	28(47)	'될대로 대라' 하면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29(64)	되도록이면 문제를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30(58)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참는다
	31(62)	살아오면서 좋았던 것, 즐거웠던 것만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문제를 잊으려 애쓴다.
	32(46)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불 덮고 그냥 잔다.
	33(56)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나자신을 위로한다.
	34(36)	문제를 크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 문제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한다.
35(13)	시간이 흐르면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36(25)	친한 사람(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그 밖의 사람 등)에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물건, 돈, 상대방의 친절 등)을 부탁한다.
	37(24)	친한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물어 본다
	38(28)	친한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화가 나는지 또는 슬픈지에 대해 이야기 한다.
	39(54)	친한 사람에게 나의 문제나 걱정거리를 이야기 한다
	40(41)	나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사람(친구나 가족 또는 그의 주변의 사람)에게 문제해결 방법을 물어 본다

( )내 번호는 일상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개발을 위한 본조사에서 사용된 질문지 번호임